

# ‘새만금’ 다룬 책들, 생명가치에 대한 담론

관련 서적들 엮갈린 주장 교차

몇 해 전 전북 부안의 갯벌에서 만난, “갯벌을 저금통장 삼아 세 아들 대학 공부에 장가까지 보냈다”는 아낙의 얼굴이 지금도 또렷이 떠오르지만, 이제 그 아낙도 든든한 저금통장을 잃어버렸을 게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채 두 달이 못되어 메마른 갯벌은 껍데기만 남은 조개들이 흉흉한 무덤을 이루고 있으니, 그 든든하던 저금통장은 이제 바닥을 드러냈고, 끝이어 마이너스 통장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새만금 공사 중단을 위한 삼보일배의 여운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정작 새만금 물막이 공사는 끝나고야 말았다. 세상이 새만금의 개발이나 보존이나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일 때, 책과 출판 역시 새만금을 두고 찬반논쟁을 벌였다. 2003년 8월 《새만금 새만금》을 시작으로 최근 발간된 《새만금은 갯벌이다》까지 10여 권의 새만금 관련 서적이 선보였다.

재미있는 것은 정부가 농업용지로 활용하느냐 공업용지로 전환하느냐,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느냐를 두고 정책결정을 갈팡질팡 하는 것과는 달리 새만금을 활용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 많다는 점이다. 다소 황당한 주장처럼 들리지만 새만금을 13억 중국인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동양의 라스베가스’로 만들어 국제적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새만금의 기적을 위한 말굽자석 플랜》처럼 독특한 주장을 담고 있는 책도 있다. 《새만금에서 : 다른 시각과 열린 논의들》과 《여의도에서 새만금으로》는 도시설계적 측면에서 새만금 활용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찬반논쟁의 중심에 선 책도 있다. 《3조원의 환경논쟁 새만금》처럼 새만금 개발



## 서평

### 《개벽과 상생의 문화지대 새만금문화권》

새만금의 문화·정신적 광맥에 대한 발굴보고서

글 김용현(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마침내 새만금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14년 넘게 지속된 온갖 논쟁과 갈등에 비추어 보면 그 끝은 싱겁기 짝이 없다. ‘공사 지속’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부터 공사가 일사천리로 재개되어 36일 만에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라는 새만금 공사의 운명이 고작 13명의 판사들에 의해 판가름 난 셈이다.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 되던 날 그 반응은 다양했다. 방조제 위에서 만세삼창을 하며 환호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서는 ‘이 날을 목 놓아 통곡하노라’며 울분을 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차피 공사는 강행됐고,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사람들은 아마도 찬성과 반대의 중간쯤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개벽과 상생의 문화지대, 새만금 문화권》은 바로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다. 이 책은 새만금과 관련된 모든 담론이 문제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근원적 비판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새만금에 관한 모든 문제가 ‘개발해야 한다’와 ‘개발해서는 안 된다’ 가운데 하나를 택일하는 단답형 질문으로 환원되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개발 아니면 환경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의 지속은 더 이상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따라서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살리는 미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이 책은 역설한다. 더 나아가 새만금 개발의 문제는 “이른바 서해안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났으니 새만금에 대한 논의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물막이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새만금 개발 반대론자들이 우려했던 갯벌의 죽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한 혈세 낭비를 지적하면서 새만금 개발의 당위성을 펼친 책도 있었고, 《새만금은 갯벌이다》 《새만금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새만금 갯벌에 기댄 삶》 등 새만금을 추억하며 개발 반대를 주장한 책들도 있었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났으니 새만금에 대한 논의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물막이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새만금 개발 반대론자들이 우려했던 갯벌의 죽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다. 갯벌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갯벌을 삶의 터전 삼아 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죽은 갯주변을 유령처럼 맴돌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갯벌을 매운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생명'의 가치와 그것이 담고 있는 함의를 새롭게 논의할 시점이 된 것이다. 시대 정신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출판인들이 새만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다시금 시작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문** **취재** 정동석 기자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더불어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새만금 지역에는 매우 풍부한 문화·정신적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리하는 연구가 크게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이유는 문화의 차원에서 새만금에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 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시된 새만금의 방안들은 한결같이 지역의 고유한 사회·문화·정신적 전통에 대한 고려를 담고 있지 못하다. 새만금에 대한 논의는 개발과 환경이라는 이념틀에 과도하게 지배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방조제와 갯벌로만 쏠렸기 때문에 정작 이 지역의 생생한 문화와 자연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것이 이 책의 지적이다.

이 책은 새만금 지역의 문화와 사상을 포괄적으로 탐구한 최초의 연구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만금 지역의 가장 특징적인 문화·요소를 조사 발굴하고, 그것을 관통하는 일관되기도 고유한 문화적 동질성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새만금문화권을 '개벽과 상생의 문화시대'로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이다. 이 책의 주저자인 김성현은 새만금문화권의 성격을 다섯 가지로 파악한다. 그에 의하면 새만금 지역은 이득한 옛날부터 민초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삶의 노래가 짙게 배인 서민문화권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뿌리 깊은 변혁운동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개혁문화권이며, 서로 다른 정신적 가치를 배제하기보다는 하나로 회통하고 새롭게 창조하려는 전통이 두

드러진 복합문화권이다. 더 나아가 새만금문화권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생명 중시'와 '상생'의 정신적 자산이 뛰어난 생태·생명문화권인 동시에, 이른바 서해안 시대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한국은 물론 인류 문화의 미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형문화권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새만금지역의 선도(仙道)문화, 불교문화, 유학사상, 그리고 동학사상이 그 전모를 드러내게 되었다. 최치원, 정여립, 남궁두, 허균, 권극중, 진묵, 유형원, 전봉준, 강중산, 박중빈 등 이 지역과 관련된 수많은 선각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개벽'과 '상생'의 상징으로 의미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공이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새만금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 온 전문가들의 정성이 담겨 있다. 그들은 이 책을 내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갈등과 투쟁이 범람하는 대한민국 상극문화의 한 복판에 들어앉은 새만금이 실은 '상생'과 '생명' 가치의 오래된 발신 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새만금이 비록 갈등과 투쟁의 상흔으로 얼룩졌으나, 오래 전부터 이 땅에 살았던 이들이 물려준 정신적 자산에 바로 새만금의 상처, 우리시대의 질병을 치유할 묘약이 숨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그리고 그 문화는 '상생'과 '생명'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 그 가치만이 인류의 갈등과 투쟁, 그리고 그로 인한 지구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새만금의 문화·정신적 광맥에 대한 최초의 발굴 보고서인 이 책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